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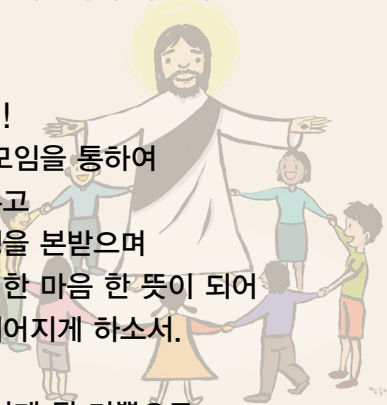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

주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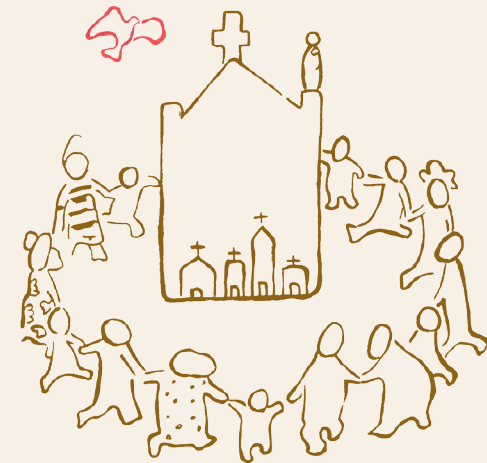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향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소공동체 모임 순서

- ▶ 소공동체 봉사자는 모임 순서를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
- ▶ 소공동체모임 시작 전에, 매월 2째주 혹은 3째 주일의 복음나누기 중에서 미리 선택한다.

1. 시작성가

- ▶ 소공동체에서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시작성가를 안내한다.

[진행] • 성호경 / 오늘 모임을 시작하면서, 성가()번 ()절을 노래하겠습니다.

2. 인사 나누기

- ▶ 전입자나 처음 나오신 분 또는 특별참석자가 있는 경우에 소개한다.

[진행] • 각자 소개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3. 전 모임 기록 낭독

[진행] • 지난번 반회의록을 낭독해 주십시오.

4. 길잡이에 의한 복음나누기

- ▶ 소공동체가 선택한 주일의 '길잡이에 의한 복음나누기'에 따라 진행한다.

[진행] • 길잡이에서 ()주일의 복음나누기 부분을 펴 주십시오.
(모두 펴면)

- [1] 주님초대하기
- [2] 하느님 말씀
 - 1) 복음말씀을 읽는다.
 - 2) 침묵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
 - 3) 마음 안에 들려 온 말씀을 나눈다.

- [3] 한 걸음 더 나아가기
- [4] 생명의 말씀 정하기
- [5] 말씀 살기
 - 1) 지난달 실천사항 나눔
 - 2) 이번 달 실천사항 논의
- [6] 마침기도

5. 궁금했어요 『소공동체 다시 배우기』

[진행] • '궁금했어요' 부분을 펴 주십시오.(모두 펴면)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6. 기타토의 및 공지사항

[진행] • 우리 소공동체에서 본당에 건의하거나 기타토의 할 사항을 나누겠습니다.

[진행] • 본당 공지사항과 구역·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 차기 모임장소와 날짜 정하기

- ▶ 다음 모임의 장소를 제공할 세대와 날짜를 정하고 기록한다.

[진행] • 차기 모임 장소와 날짜를 정하겠습니다.

8. 소공동체를 위한 기도

[진행] • 본당 소공동체를 위하여 다함께 '소공동체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9. 마침성가

- ▶ 반장은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마침성가를 안내한다.

[진행] •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성가()번 ()절을 노래하겠습니다. / 성호경



연중 제32주일(11월 11일) 저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마르 12,38-44)

시작성가

- [진행자] • 가톨릭 성가 41장 “형제에게 베푸는 것”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당신 목숨을 바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 해 주소서.”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한 분이 마르코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그때에 예수님께서서는 군중을 38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이르셨다. “율법 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긴 겹옷을 입고 나다니며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즐기고, 39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잔치 때에는 윗자리를 즐긴다. 40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 먹으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길게 한다. 이러한 자들은 더 엄중히 단죄를 받을 것이다.” 41 예수님께서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으시어,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 많은 부자들이 큰돈을 넣었다. 42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와서 렵톤 두 닢을 넣었다. 그것은 콰드란스 한 닢인 셈이다. 43 예수님께서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44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진 것을, 곧 생활비를 모두 다 넣었기 때문이다.”



-프랑스어 조제프 나베, 가난한 과부의 헌금-

- [진행자]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진행자]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개인묵상)

“조심하여라.” (마르 12,38)

우리에게도 율법 학자와 같은 위선과 특권 의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스스로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진 것을”(마르 12,44)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 혹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느님께 기꺼이 드렸던 적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진행자]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신부님께서 본가에 가셨다가 부친께서 읽다 놓아두신 교구 주보를 보시게 되었답니다. 아버지께서는 주보에 실린 어려운 이웃의 이야기 귀퉁이에 몇 번이고 밑줄을 그어 놓으셨는데 종이 구깃구깃해진 것이 여러 번 보신 모양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주보를 보시며 ‘어렵구나, 사람들이 참 어렵게들 사는구나.’ 하시더니 얼마 있다 다시 들여다보시며 ‘세상이 참 어렵구나. 어려워...’ 하시기를 몇 번, 결국엔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그곳으로 보내셨더라고요. 아버님도 자식들에게서 받는 용돈이 전부 인지라 걱정스런 마음, “아버지, 지금 그러실 상황이 아니실 텐데요.”라는 신부님 농담에 “그럴 때마다 이상하게도 어떻게든 다시 통장이 채워진단다.” 하시며 환히 웃으시더라고요. 아버님의 마음이 바로 가진 전부를 내놓았던 가난한 과부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에 봉헌이나 기부를 생각하기가 어렵고, 바쁠수록 시간을 내어놓기 힘든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이 하느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인

입니다. 물질적인 세상의 가치가 만연할수록 ‘인간적인 것’에 머무르기보다, 하느님이 누구이신지 알아 뵈옵고 나에게 주신 것을 기꺼이 봉헌하며, 이웃을 두루 살피고 나누는 ‘인간다움’을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진행자] • 지난달 우리 소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으로 어떻게 생활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진행자]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 해 봅시다.

마침기도

[진행자]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41장 “형제에게 베푸는 것” 2절을 노래합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연중 제33주일 (11월 18일) 사람의 아들은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마르 13,24-32)

시작성가

- [진행자] • 가톨릭 성가 39장 “하나되게 하소서”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 저희와 함께 해 주소서.”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한 분이 마르코 복음 13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24 “그 무렵 큰 환난에 뒤이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25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26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27 그때에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28 너희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비유를 깨달아라. 어느덧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게 된다. 29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 줄 알아라. 30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31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32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출처 - 바오로딸 콘텐츠 오마리아수녀의 주일복음그림

- [진행자]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개인묵상)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마르 13,26)

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 [진행자]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사자가 숲에 있는 모든 짐승에게 자기가 왕이니까 아침저녁으로 문안을 드리라고 명령했다. 숲의 짐승들은 숲의 왕인 사자의 말을 거역할 수 없어서 모두 문안을 갔다. 그런데 여우만은 가지 않았다. 사자의 시종이 여우에게 찾아왔다. “너는 왜 숲의 왕께 문안을 드리지 않느냐?” 여우가 대답했다. “사자굴로 들어간 발자국은 있는데, 나온 발자국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우는 발자국의 흔적을 통해서 사자가 문안드리러 온 짐승들을 다 잡아먹었다는 사실을 읽었던 것이다. 이솝 우화집에 나오는 의미심장한 이야기다. 오늘 우리는 과연 시대의 징조를 읽고 사는가? 예수께서도 무화과나무를 보고 배우라고 말씀하신다.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워진 것을 우리가 알듯이, 세계의 종말의 징조를 읽으라고 말씀하신다. 그것을 읽지 못하면 우리도 사자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사자굴로 들어가 제물이 된 짐승들처럼 어처구니없는 꼴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세계 종말의 징조를 일러주시기 위해 상징적 언어를 사용하셨다. 그 언어는 참으로 해독하기 어렵다.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잃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며 모든 천체가 흔들릴 것이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 아마도 이것은 지고하신 심판자 하느님의 위엄 앞에 선 인간과 우주의 혼동과 놀라움과 자기 분열을 나타내는 것 이리라. 만일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거대한 혼돈과 분열상을 보여주는 세계 앞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지표를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세상의 종말, 그것의 시와 때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그때를 알지 못하는 우리

의 할 일은 영적으로 깨어서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습니다.”(1테살 5,6) 사자굴 앞에서 발자국의 흔적을 살폈던 여우처럼 깨어 있는 자는, 갑작스런 혼돈과 시련의 때를 당해도 당황하지 않고 하느님의 구원의 은총을 잃지 않을 것이다.

마리아 사랑넷 - 하늘은총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진행자] • 지난달 우리 소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으로 어떻게 생활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진행자]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 해 봅시다.

마침기도

[진행자]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39장 “하나되게 하소서”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다시 처음처럼 시작하는 공동체

—중앙동본당 구역분과위원장 최영애 루시아—

중앙동본당 소공동체 모임은 신자들의 노령화와 지역사회
의 공동화로 인해 어려웠던 지난 시간들을 딛고 일어나 활성
화의 불씨를 피우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정철
현 바오로 신부님께서 일일이 각 구역과 반을 방문하시며 구
역과 반 미사를 통해 격려해주신 덕분에 소공동체마다 새로
운 각오를 다지고 다시 마음을 모아 하나 되고자 힘을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주임 신부님께서 본당 각 구역과 반 미사
를 실시하신 후로 전체 구역과 반에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길잡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로 진행되는 모임 안에
서 함께 기도하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느끼
는 생활 속의 신앙을 함께 나눕니다. 소공동체 모임 전후로 집
안에 제사를 앞두고 있는 집이 있다면, 그 집에 모두 모여 연
도를 같이 바치기도 합니다. 소공동체 모임이 잘되는 소공동
체는 부부가 함께 참석하고, 1년에 한 번 소공동체별로 성지
순례를 갑니다. 형편이 여의치 않은 반은 모임을 식당에서 가
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반은 각 가정을 방문하여 모임을 가

집니다. 소공동체 준비모임에도 반장님들께서 많이 참석하
셔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중앙동성당은 신자들의 고령화로 몸이 불편하고 건강이 여
의치 않아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만
큼 봉성체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 편이라 어려움도 있지만,
봉성체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을 위해 행복한 마음으로 언제
나 기쁘고 감사하게 받아들이면서 봉사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어진 상황 안에서 새롭게 소공동체 모임을 펼쳐 나가려는
저희 본당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소공동체 다시 배우기

소공동체는 어떻게 하나요?

소공동체 구성원들의 집에서 모입니다.

소공동체 모임은 삶의 현장인 구성원의 집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생활수준에 편차가 있다 보니 나의 살림살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내보이는 것은 분명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의 자리를 개방할 때에야 삶의 연대가 가능해 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놓아 부족함을 부끄러이 여기지 않고 타인의 풍요로움에 마음 두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구성원의 집에서 모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가능하다면 매주 모이는 것이 좋습니다. 복음이 삶 안에서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나누기를 합니다.

소공동체 모임의 중심은 복음입니다. 복음나누기를 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여느 모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님을 초대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나누는 일을 통해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고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교회를 “하느님과의 깊은 일치와 전 인류의 깊은 일치를 표시하고 이루어 주는 표지요 도구”(「교회헌장」1항)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교회의 핵심 단위인 소공동체의 모든 활동 역시 하느님과의 깊은 일치가 바탕 되어야 하며 복음나누기는 그러한 하느님과의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길을 마련하여 줍니다.

활동을 합니다.

활동이 없다면 일반적인 기도모임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이듯 실천이 없는 믿음도 죽은 믿음”(야고 2,26) 이라며 실천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들고, 궁핍한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 어루만지고 치유해 주셨듯이 이웃과 교회 공동체, 나아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는 데서부터 시작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활동을 통해 하느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시고 활동하고 계시다는 것을 증거 해야 합니다.

보편교회와 일치합니다.

소공동체는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로 소속 본당과 교구, 나아가 보편교회와 일치해야 합니다. 때문에 동일한 성사와 전례에 참여하고 같은 복음을 읽어 하느님 백성 전체 안에서 서로 연대를 이루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공동체를 서로 방문하고, 사목협의회와의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본당과 강한 유대를 맺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소공동체모임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보편교회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지향하는 소공동체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수원교구 복음화국 「한마음 한뜻으로」 소공동체 교육교재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사목국 일정

■ 구역분과 위원장 모임

지 구	일 시	장 소
마산지구	12월 5일(수) 오후 2시~3시30분	양덕동성당
창원지구	12월 6일(목) 오후 2시~3시30분	반송성당
진주지구	12월 12일(수) 오후 2시30분~4시	신안동성당
거제지구	12월 13일(목) 오후 2시30분~4시	고현성당

- 대 상 : 각 본당 구역분과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서기, 총무
- 준비물 : <12월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 문 의 : 055)249-7021~3